

삼성중공업, 유럽 풍력발전 사업 강화

삼성중공업이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유럽을 공략할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유럽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인 INVAL과 폴란드 풍력발전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폴란드 북부 발트해 지역에 85MW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는 INVAL이 전체적인 개발을 담당하고, 삼성중공업이 발전기와 기계공사, 남동발전이 운영을 각각 맡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INVAL이 폴란드에 총 240MW, 루마니아 560MW, 마케도니아 468MW 등 동유럽에 2GW에 달하는 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동유럽 풍력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3/21>